

## 다름을 인정하기, 다름을 이해하기, 같음을 뛰어넘기: 협력생애사 과정에서 드러난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국민과 민족 경계 연행에 대한 분석

조일동\*

**요약** 이 글은 다양한 역사, 문화, 사회, 이데올로기적 배경을 가진 70세 이상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6-8명을 한자리에 모아 진행한 협력구술사 과정에서 드러난 국민과 민족의 연행 방식과 그 의미를 분석한다. 디아스포라의 삶이야기 속에서 국민과 민족은 맥락에 따라 중첩되기도 하고, 전혀 다른 존재로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균열이 부각되는 맥락은 주로 식민 및 냉전에 대한 한반도 안과 밖에서 경험한 다름에서 기인한다. 참가자들은 이를 동안 비일상적 시공간에 초대되어 동일한 크기의 발언기회를 가졌다. 따라서 한반도 정주민을 포함, 그 누구의 삶이야기도 절대성을 가질 수 없었다. 덕분에 참가자 모두 서로의 삶을 상대화시켜 재조망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다. 참가자는 자신의 다름을 드러내고, 다름 속에 숨겨진 닮음을 확인하기도 했다. 또 국가폭력이나 차별의 양 당사자가 오랜 삶을 개척해온 인간으로 마주할 기회가 되었다. 과거를 화해시키거나 치유할 순 없어도,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대립의 구조적 문제를 이해할 여지를 만들었다. 단일하지 않은 삶의 과정을 나누는 다양한 한민족의 협력생애사 경험은 유연한 민족과 국민의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게 했다.

**주요어** 협력생애사, 삶이야기, 냉전, (탈)식민, 코리안 디아스포라

## 1. 들어가며: ‘우리’ 낮설게 보기

일상에서 ‘조선족’, ‘고려인’ 등 한반도로 귀환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만나는 일은 더 이상 낯선 경험이 아니다. 또 미디어를 통해 이들이 겪는 차별이나 어려움에 대해서도 익숙하다. 그러나 한국사회 일반은 이들이 귀환이주를 선택한 이유부터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문제의 해결책까지 모두 경제논리로 이해하곤 한다. 귀환동포의 비자나 사회보장 문제를 듣게 될 경우 역시도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관련한 요구로만 이해하고 넘긴다. 반드시 잘못된 해석이라 할 순 없다. 허나 이들의 요구 속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삶에 드리운 냉전과 (탈)식민이라는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저류하고 있음 또한 사실이다. 다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 개개인의 생애 과정과 맥락 속에서 냉전과 (탈)식민의 상흔은 이론적/담론적 차원이 아니라 현재진행형으로 여전히 작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은 필자가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참여해온 공동연구 과정에서 만난 사례 중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탈)식민과 냉전이 드러나는 순간과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살피는 데 목적이 있다.

이들에게 (탈)식민과 냉전의 역사는 과거 어느 시점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정체성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한민족과 한국의 역사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제대로 위치지을 수 없다고 주장할 것이다. 여기에는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한민족의 문제를 해결할 주체가 한국사회(혹은 남북한)라고 보는 한반도-지도 중심 사고방식에 대한 비판도 포함된다. (탈)식민과 냉전이 당연하게 삶 한가운데서 작동하고 있는 다양한 배경의 코리안 디아스포라 당사자가 한 자리에 만나 대화하는 과정을 살피면서 단일한 공동체로 상상되는 “한민족” 서사가 가리고 있는 민족 내부의 “다름”을 드러내며 이해하고, 나아가 “같음”을 넘어 공존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지 모색해보는 기회가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공식적인 한국 역사-국사에서 오랜 동안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우리’의 역사에서 파생된 부차적이고 슬픈, 혹은 안타까운 존재 정도로 취급 되어왔다. 여기에는 한국과 한국국민이 ‘우리’ 한민족의 중앙, 중심, 핵심, 본령이며 해외 거주/귀환이

주 한인 동포는 변방, 부수, 나머더라는 사고방식이 작동하고 있다. 당연하게도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언젠가 중심-한국이 감싸 안아야 할 소수, 약자, 안쓰러운 집단 정도로 취급되었다. 귀환동포 숫자가 많아지고 몇몇 강력사건을 겪은 후에는 '잔인하고 위험한' 존재로 뒤바뀌기도 했다. 이들은 자신이 서너 세대를 살아 온 공간에서도, 또 몇 세대 만에 다시 돌아온 한국사회에서도 끊임없이 자신의 성원권을 증명하고 증명받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다(선봉규 2015; 성동기 2013; 신기영 2016; 양은경 2010; 이정은 2012). 이들 연구가 증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건 '타자'이자 '대상'일 뿐, 한반도 정주민과 같은 혹은 그를 포괄한 존재가 될 수 없었다.

결은 다르지만 그간 학계가 코리안 디아스포라에게 던져온 시선도 큰 틀에서 보면 방향성이 다르지 않다. 한반도 밖 세계에서 살고 있는 다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개별 집단이 처한 역사적 맥락을 일별하고 현재 상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곤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는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등의 이름으로 호명하고 각 집단이 가진 몇 가지 역사, 사회, 문화적 성격을 살피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치 각 집단을 고정된 실체인양 기술하는 한계를 노출하곤 했다.<sup>1</sup> 중국에서도 여러 지역을 이동하며 살아온, 혹은 중국에서 러시아, 북한, 다시 한국으로 이동하는 존재로서 각 이동 과정마다 만들어진 특별하고 유동적인 정체성은 부각되기 어려웠다. 또 이동의 여정 속에서 각기 다른 배경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조우한 경험과 그 의미에 대해서도 그간 학계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이는 개별 연구자의 시선, 서술방식의 문제라기보다 특정 지역에 살고 있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역사와 삶을 압축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지면의 한계, 현상 보고가 다급한 선행연구의 부족 등이 겹쳐진 결과이기도

1 물론 모두가 그러한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김현미(2008)는 영국으로 이주한 조선족의 사례 속에서 다양한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실천으로, 김경화(2014)은 고려인을 이주를 둘러싼 네트워크 작동으로, 이희영(2012)은 탈북여성의 초국적 이주를 결혼, 노동, 난민 등 단순한 목적론으로 환원할 수 없는 존재로, 조일동(2015)은 영구귀국 사할린 동포를 언어, 문화, 이데올로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주체적으로 삶을 기획해온 존재로, 최승현(2016)은 조선족을 '선택적 정체성'을 선택한 존재로 설명하는 등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이주 속 '능동성'을 강조하는 연구 역시 존재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서 논하는 능동성은 스스로 자신의 존재나 경계를 구획 짓는 실천과는 다른 의미이다.

하다. 이 글은 기존 연구가 지닌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시도한 실험적 연구에 대한 기록과 분석이다.

필자를 포함한 공동연구진은 지난 7년간 이야기꾼으로서의 자질을 지닌 1945년 8월 이전에 출생한 다양한 배경의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한 자리에 초대해 생애사를 나누는 ‘한민족다문화 삶의 역사이야기’라는 프로그램을 16회에 걸쳐 진행했다. 이데올로기부터 사회·문화·교육·금융 자본의 크기와 방식이 각기 다른 신향민, 남한 정주민과 조선족, 고려인, 재일동포, 재미동포, 탈북자 등을 매회 구성을 달리하며 남녀 성비 균형을 고려해 6명에서 8명씩 초청하여 비일상적 공간 - 대학이나 교외에 자리한 워크숍 공간 등으로 초청, 이를 동안 구술자이자 질문자, 청취자로 서로가 서로에게 각자 삶이야기를 듣고, 묻고, 답하며 나누게 했다. 이 과정에서 ‘우리’라는 개념, 중심과 변방이라는 관념, 민족과 국민 사이에 놓인 경계의 모호함과 (의외의) 견고함, 경계 넘기의 경험이 가져온 변화 등이 삶의 궤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 되었다. 같고 다른 표현 방식, 단어 선택, 몸짓, 표정 등이 나타났고, 이를 신중하게 살피고 기록했다.

집단 구술의 형태이기에 일반적인 개인 생애사 구술에 비해 선택적인 내용을 듣게 될 수밖에 없었지만, 대신 서로가 서로에게 궁금한 내용을 묻고 답하며 개인 생애사 구술과는 다른 차원의 역동이 나타났다. 같은 숙소에서 이들을 온전히 함께 지내는 동안 참가자 사이의 상호작용과 관계 자체도 변해갔다. 이들의 상호작용과 관계 변화 속에서 드러나고 모아지는 주제는 모임 매 회 차마다 참가자의 배경이나 경험에 따라 상이했다. 이 글은 16회의 협력생애사에서 발견된 여러 주제 중 특히 냉전과 (탈)식민 관련한 부분에 초점을 두고자한다. 필자가 이 글에서 제기하는 큰 틀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 거주민을 포함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각자 자신의 삶을 어떻게 구술하고 그 안에서 냉전과 (탈)식민 문제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구술 속에서 (국민국가, 민족, 문화, 언어, 이데올로기의) 경계를 넘는 경험은 어떻게 스스로에게 이해되고 맥락화 되며, 다른 참가자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만드는가. 이들의 구술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러한 주제는 어떤 식으로 수정, 변경되거나 강화되는가? 우리는 이들의 삶이야기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 2. 실천 의례로서의 협력생애사

이 글은 필자가 참여한 실험적 실천연구라 할 수 있는 ‘협력생애사’ 방법론을 사용해 진행한 16회의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연구진은 개인을 대상으로 수집하는 구술생애사 수집 방식과는 달리 다양한 정체성과 문화적 배경을 가진 한민족 구성원 6-8명을 한 곳으로 초청, 1박2일 동안 함께 지내며 개인의 삶을 이야기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게 했다. 방법론이 다른 만큼 일반적인 의미의 구술생애사 수집과 연구목적 역시 다른 차원에 초점을 두었다. 즉 개인의 경험을 통해 역사적 사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 타인의 삶을 함부로 규정하지 않도록 주의하며 다른 맥락에서 살아온 참가자의 삶을 서로 온전히 이해해보고자 노력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참가자 사이의 상호이해가 목적이 되면서 삶이야기 속 서사 구성이나 이를 의미화 시키는 방법의 같고 다름을 살피는 게 중요해졌다. 따라서 일반적인 구술생애사 연구에서 중시하는 “정보제공자가 상세히 이야기한 사건에 대하여 다른 직접 목격자들의 이야기를 가능한 한 수집하는 것”(Crane & Angrosino 1996: 126)과 같은 사실관계 확인에 집착하지 않았다. 참가자가 언급한 (사회적) 사건이나 정확한 지명 등을 확인하는 최소한의 절차는 있었지만, 그렇더라도 삶이야기의 목적은 사실관계가 아니라 상대의 삶을 존중하고 느껴보기에서 벗어나지 않고자 했다.

협력구술사 뿐 아니라 모든 구술사 작업은 “화자와 연구자 간의 대화 또는 공동 연구의 결과”(윤택림 2004: 106)가 될 수밖에 없다. 심층인터뷰를 포함한 질적연구에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 연구대상자와 연구대상자 사이에서 벌어진 만남은 “서로에 대한 경청을 약속”한 것으로 상호대화의 형식이 될 수밖에 없다 (Oakley 2000: 47).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은 6명가량의 참가자가 둘러앉아 자신의 이야기를 일정시간 시간(30-40분) 동안 구술하긴 하지만, 그와 비슷한 크기의 시간을 다른 참가자가 발언자의 삶이야기 속 빈 부분에 대해 묻고 답하며 채워나가게 된다. 즉 구술사에 가까운 대화의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며, 이는 구술과정부터 공동작업의 성격을 짙게 띠게 만든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작업은 단지

삶이야기의 어떤 사실을 묻고 답하는 수준을 뛰어넘는 중층성이 핵심이다.

면대면 연구 상황에서는 오가는 언어 이상으로 다양한 장치가 작동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중층적으로 기록할 필요성에서 감각민족지(sensory ethnography)라는 개념을 창안한 핁크(Pink)는 인류학 인터뷰에서 말하기는 핵심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친밀한 만남 속에서 감각 요소가 극대화 되고 입말로 전달하는 내용과 은유는 물론 몸동작, 다양한 터치, 공간의 냄새, 소리, 장면, 심지어 함께 나누는 음료나 음식의 맛까지 모든 것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지점임을 강조한다(Pink 2015: 74). 공감각 경험이 인류학 인터뷰의 핵심이고, 이를 담기 위한 노력이 현대 인류학자가 경주해야 할 부분이라는 거다.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의 진행도 크게 다르지 않다. 삶이야기를 여행하는 시간 뿐 아니라 한 식탁에서 밥을 나누고, 같은 숙소에서 두런두런 대화를 나누며 밤을 지새우는 경험은 공식적인 구술 현장과 비공식적 뒷자리에서 나누는 행동과 대화 내용 구분에 균열을 가한다. “예의 바람, 따뜻함, 너그러움, 남들과 어울리는 즐거움 같은 유쾌한 대인 관계란 언제나 뒷무대의 뒤편이고 의심, 속물 근성, 권위 과시 따위는 앞무대의 뒤편이라고 생각지는 말아야 한다.”(Goffman 2016: 168)는 고프먼의 지적처럼,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은 공식적으로 구술을 하고 질문을 주고받는 시간에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다. 삶이야기를 들려주고, 경청하고, 질문한다는 참여형식상의 공통점을 제외하면 전혀 다른 삶의 궤적과 배경, 내러티브를 가진 참가자가 비일상적인 공간에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전면적으로 함께한다. 그 안에서 삶이야기에 담긴 내러티브는 물론 목소리, 억양, 표정, 손짓, 공간의 냄새부터 헛살까지 수많은 것을 함께 느끼고 나누게 된다. 이 두툼한(thick)한 공감과 공유의 이틀 후에는 참가자 모두 다시 전혀 다른 각자의 생활공간으로 되돌아간다.

협력구술사 프로그램은 자신이 살고 있는 시간과 공간에서 벗어나(분리), 일상을 규준하고 있던 사회적 규칙이나 위계와 달리 누구에게나 동일한 발언 기회와 시간을 이틀 동안 경험하고(전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재통합) 흐름으로 되어 있다.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는 일종의 의례 구조를 가진 썸이다. 셰크너(Schechner)는 의례란 일상의 반복적인 삶에서 벗어나 가정법, 교체 가능성, 즉흥성 등이 작동하는 순간이며, 여기서의 의례는 종교 현상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고 말한다. 현대사회의 시작과 끝이 정해진 상황 속에서 비일상적 경계넘기를 경험하는, 참가자는 공연의 장에서 각자에게 필요로 하는 각기 다른 정체성을 연행하는 판 - 의례의 장이라 할 수 있다(Schechner 2004). 셰크너의 동료이자 현대사회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상징적 의례를 분석하고 퍼포먼스 이론을 개척한 터너(Turner)는 퍼포먼스 이론의 원형이 되는 사회극(social drama)을 언급하며, 의례적 시공간 안에서 종전의 사회적 구조가 전복되고 와해된 커뮤니티스(communitas) 상태의 경험이 참가자를 변화시킨다고 말한다. 그렇다하더라도 “커뮤니티타스의 전이적 상황에도 일종의 구조는 존재”(Turner 2018: 308)한다. 일상의 규칙과 전혀 다른 새로운 규칙이 의례가 만든 커뮤니티스 속에 작동하고 참가자는 이를 연행하게 된다.

협력생애사 프로그램은 자체의 규칙과 구조를 갖고 있다. 연령, 젠더, 학력, 경제력 등의 유무에 상관없이 모든 참가자에게 동일한 발언의 기회와 시간을 주며, 누구도 상대에게 자신의 가치를 강요하거나 가치판단이 담긴 공격적 발언을 할 수 없다. 각자에게 주어진 독점적 발언 기회는 사회자에 의해 보장되고 넘치지 않도록 조절된다. 삶이야기를 나누는 공간도 높이가 낮은 원탁을 둘러싸고 앉아서 서로에게 자신의 전신(얼굴표정, 손동작, 허리의 각도, 다리와 발 움직임까지)을 노출한다. 참가자는 다양한 코리안 디아스포라로 구성되며 한국사회 정주민도 디아스포라 중 한 명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한반도에서 살아온 이를 포함, 그 누구의 경험도 절대화될 수 없이 1/6 혹은 1/8의 경험으로 상대화 된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대적인 존재가 되는, 동시에 나와 다르다고 여겼던 재일동포와 중앙아시아 고려인과 한국 정주민이 자녀 문제로 혹은 시부모와의 갈등이라는 공통점을 찾기도 하는 기회다. 서로를 동질한 존재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전혀 다른 가치와 의미의 인물로 나누려고도 하지 않는 이도 저도 아닌(betwixt and between) 상태의 역동이 작동한다. 매우 비일상적인, 의례적인 시공간 경험이다.

협력구술사 프로그램과 같은 인위적인 의례 상황에서 연행된 소통과 대화의 내용을 두고 진실성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퍼포먼스 이론과 연결된 또 하나의 중요한 학자인 루시(Rouch)의 이론은 이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상인류학자이기도 한 루시는 식민지 아프리카의 일상 속 진실성을 포착하고 전달할 수

있는 학문의 가능성에 대해 고민했다. 결국 그는 학자 혹은 학자의 카메라가 개입된 현장이 자아낸 비일상성이 오히려 진실을 드러낼 수 있음을 발견한다. 학자의 카메라가 존재하는 현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행위는 “보통의 현실(normal reality)와 관계없는 새로운 진실, 즉 영화적 진실(cinema-verite)”(Eaton 1979: 48)이 되는 것이다. 루시는 카메라가 카메라 앞과 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특별한 의례를 유도하는 촉매제이며, 이 의례적 연행 속에서 연구대상이 가진 감정, 태도, 믿음, 꿈 등 의례적 진실이 드러날 수 있다고 믿었다(이기중 2014: 98-100).

6명의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진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협력구술사라는 실천의례를 진행하는 동안 한반도 정주민이 자신도 모르게 행하게 되곤하는 한반도와 한민족을 등치시키는 사고방식은 1/6의 진실이 된다. 법적으로는 한국국민인 혹은 동포비자를 통해 한국민에 가까운 지위를 가진 (그렇지 않은 이도 있으나) 존재이나, 일상에서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일본 역양 때문에 부모 혹은 조부모 세대의 이데올로기적 다름으로 인해 끊임없이 배제되는 경험을 해 온 여러 명이 비일상적 상황에서 만났다. 이 공간에서 다른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만나 자신의 배제(와 성취)의 경험을 토로하고 누군가는 자신도 모르게 배제하는 위치에 있던 삶의 경험을 토로하며, 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의례적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구술사가 지닌 해방적 힘과 치유의 가능성은 “구술자를 ‘투명인간’ 또는 ‘배제당한 타자’로부터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한다는 점”(김귀옥 2013: 141)에서 오랜 동안 주목받아왔으며, 이를 인문치료의 가능성으로까지 내다보기도 한다(김호연·엄찬호 2010). 본 연구는 구술사가 지닌 이러한 해방적 성격에 비일상성과 커뮤니티스의 경험, 집단성, 상호협력을 통한 구술완성과 같은 의례 요소를 강화했다. 권현익은 베트남에서 조상숭배의 공간 - 사당 개보수와 의례의 부활이 “단순히 전통적인 사회적 이상의 복원이 아니라 지배적인 정치적 관습에 맞선 대항수단의 창안”(Kwon 2012: 262)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천의례로서의 협력구술사는 단순한 개인의 해방적 경험에 그치지 않는다. 참가자 개개인 삶에 대한 치유이자 참가자 상호간의 세계관 상대화를 통해 새로운 관계와 화해의 가능

성을 키워냈다. 이를테면 정규 교육을 받을 적이 없을뿐더러 중년의 둘째 아들을 먼저 떠나보낸 상처를 털어놓은 빈농 출신 중국 조선족 여성이 한국전쟁 기간 중 유학을 하고 오랜 시간 대학교수를 지낸 엘리트 여성의 삶이야기를 듣고는 먼저 손을 잡아주며, “고생이 많았다”고 위로를 건네는 상황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 아래에서는 코리안 디아스포라의 협력구술사가 만들어낸 역동성과 의미를 구체적인 사례 속에서 살펴본다.

### 3. 식민경험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일제의 식민지배, 한국전쟁, 산업화 과정에서 자발적 비자발적으로 선택했던 이주와 그로 인한 삶과 가치관 전반의 변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불안정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은 지난 100여 년 동안 한민족 구성원 대부분이 겪은 일이다. 이를테면 일본국민으로 일본에 살고 있다가 종전과 함께 무국적 외국인이 되었던 ‘재일동포’, 소련국민도 일본국민도 아닌 애매한 존재가 된 ‘사할린동포’와 중앙아시아의 ‘고려인’, 하루아침에 중국국민이 된 ‘중국조선족’, 이데올로기의 다름으로 인해 한국국민이 되 국민으로 누려야 할 권리를 빼앗겼던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가족, 미국, 독일, 남미 등으로 이민과 재입국 과정에서 한국인과 해당국 사이에 낀 존재였던 초기 이민 세대, 한국 국적자임에도 끊임없이 한국사회에서 배척되는 경험을 가진 ‘탈북자’ 등은 사회, 문화, 역사, 개인 차원 모두에서 누구보다 정체성을 고민해야 했던 존재다.

이처럼 다양한 배경을 지닌 70대 이상의 한민족 구성원을 모아 삶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발견된 흥미로운 공통점이 있다. 대다수가 삶이야기를 참가자 자신의 출생이 아니라 부모 혹은 조부모에 대한 이야기로 거슬러 올라가 시작한다는 점이다. 이는 참가자에게 (조)부모 세대의 식민지 경험이 생애 전체를 관통하는 중요한 사건임을 은유한다. 자신이 나고 자라고 일생 대부분을 보낸 터전이 일제강점기 (조)부모 세대가 감행한 강제적, 자발적 이주의 결과임을 구술 시작부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이야기는 윗세대의 이주사로 시작한다. 그

같은 이주에는 현재와 다른 국경선과 지리적 인식체계가 작동했던 식민지 조선이라는 맥락이 작동했음은 당연하다. 한반도는 물론 일본, 사할린, 하얼빈, 만주 등이 모두 일제의 영토이거나 일제가 만든 식민지의 국경에 인접한 공간이기 때문이다.

김일정<sup>2</sup>: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중국에서 근 70년을 지냈지만 태어난 자리는 한국이네요. 전라북도 순창군 적선면 지북리입니다. 내 그 당시, 내가 다섯 살 때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우리 삼형제를 데리고... (기침) 북만주로 가세요. 지금 말하자면 할빈(하얼빈 - 필자 주), 어찌 갔는가 하면 이때는 몰랐지만은... 일본 사람들이 아버지를 군대로 잡으라고 하는 바람에 아버지 '군대는 죽어도 안 간다. 가자, 썩은 좁 한 그릇을 먹어도 그래도 중국에 가면 먹는다'함서 이래가지고서 중국에 드가게 되었어요. (2012. 11. 23. 한양대학교 ERICA)

김진경: 그니까 아버님이 집에 잘 안 계시고 여러 군데 이렇게 이동하시고 살아오신 모양입니다. 일제 강점기에 강점, 강점기... 아... 1940년에 우리 아버님과 일본을 거쳐 일본에서 조금 계시다가 사할린 갔습니다. 그 때 막 모집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일 년 후에 우리들 이제 가게 됐죠. 식구, 나머지 식구가 아버님 따라 사할린, 그 때 갔을 때 유월 달이었습니다. 그 해. (2012. 11. 23. 한양대학교 ERICA)

성진주: 사람들이 다 고향, 다 한 곳이지요? 그런데 저는 고향이 세 곳이에요.(웃음) 제가 난 고향은 일본이거든요. 그 다음은 두 번째 제 청춘시절, 가정시절 거의 반년 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태어난 고향이 대한민국이네요. 그래서 저는 세 개 고향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 처음에 저는 해방된 다음 해에 1946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일본말로 요시다 신기지 어머니는 상하 시즈코. 제 이름은 상하 미츠키. 저는 여동생 하나 있습니다. 우리 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근데 우리 저 부친. 경상남도 고성에서 태어났는 한국사람 이거든요. 일제시대 그 우리 아버지는 처음 기억 속에는, 아버지가 이야기 안하셔서 잘 모르지만은, 해외로 다니면서 일제 강점시기에 일본사람들하고 장사꾼이

2 이 글에 등장하는 모든 인명은 참가자 뿐 아니라 언급되는 인물까지 모두 가명처리 되었다.

된 거 같아요. 근데 거기서 아버지가 심부름하시면서 일본으로 건너가셨어요. 건너가셨다가 해방된 다음에 우리 어머니 오사카에서 만나셔서. (2013. 11. 9. 한양대학교 ERICA)

일제강점기에 생계를 위해 고향을 떠나 먼 곳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혹은 여전히 일본에 살고 있기에, 일본제국주의와 식민지에 대한 이야기로 자신의 삶이야기를 시작한 것일까? 어린 시절이나마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이도 있지만, 해방 즈음 태어나 부모와 전혀 다른 시대를 살아온 이조차 삶이야기의 시작은 태어나기도 전 일제강점기 이야기다. 기억하기 힘든 어린 시절 혹은 부모 세대에게 전해들은 이야기임에도 삶이야기 속 일제강점기는 여전히 생생할 뿐 아니라 생애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혹시 일제강점기에 한반도를 떠나며 시작된 코리안 디아스포라 집단 운명이 반영된 디아스포라 서사의 전형적인 발화 형태는 아닐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반도를 떠나본 적 없는 참가자의 삶이야기와 비교가 필요할 것 같다. 한반도 거주민의 삶이야기는 일제강점기와 그 시절 선대가 감행한 (이주)경험에서 자유로울까? 그렇지 않다. 여기 한반도에서 일생을 거주한 남성과 부유한 제주 가문 출신 여성 참가자의 삶이야기를 살펴보자. 역시나 시작은 자신이 태어나기 전 일제강점기의 얘기다.

장천수: 왜정 때 그... 을지로가 가요, 일본말로 고가네마찌 라고 했어요. 그걸 오정목, 그렇게. 지금 을지로 5가죠. 거기서 나가지고 거기 방산 초등학교라 해서 방산 시장, 거기에 지금은 없죠. 거기 다니다가 이제 해방이. 음 해방 1년 전에 우리 집이 거기서 좋고, 옛날엔 이... 방앗간을 크게 해서 (중략) 해방 1년 전에 그 일본, 일본 사람들이 떡 방아 기계 있죠? 쇠, 쇠덩어리, 그거 압수하는 바람에 그래가지고 이젠 말하자면 소까이(疏開)라 그러지, 일본말로. 그래서 피난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당진으로 갔어요. (2013. 4. 26. 한양대학교 ERICA)

박정애: 집안이 조금 좁, 그 제주도 그 지방에서는 세력이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큰 할아버지 큰 아들이 대동아 전쟁에 군인이 올 때 사형 당했어요. 일본 사람한테. 그렇게 집안이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요. (2012. 10. 20. 한양대학

교 ERICA)

식민지 시절이 아팠던건, 즐거운 시간이었던 참가자 다수는 식민지라는 경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구술자(조)부모세대의 이주가 자발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실은 일제의 압력 속에서 생존과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 떠난 것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는 부모가 아닌 스스로의 선택으로 1960년대 이후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등으로 이주했던 인물들의 이야기에서도 드러난다. 한민족의 아르헨티나 이주 관련 자료를 모아 책을 집필하기도 했던 김철영 역시 기억이 또렷한 부산에서의 유년 시절 얘기가 아니라 함경남도 영흥에서 일제강점기 근로감독관 일을 했던 아버지의 얘기로 자신을 소개한다.

김철영: 크리스마스에 이북에서 배를 타고 이북에서 올라오고 했는데 저도 저는 태어나... 이북에서 태어났습니다. 이북에서 태어나가지고 그 배를 타고 그거...(사회자: 흥남부두) 네, 그래서 거제도에서 살았습니다. 기억은 저는 전혀 없습니다. 근데 아버님께서 그때 이북에서 무슨 일을 하셨냐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확인이라기보다 알아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근로감독관, 광산 근로감독관 그런 일을 일제 때부터 해오셨는데, 인제... (2019. 4. 26. 한양대학교 ERICA)

일제가 강제동원을 실시하지 않았던 시기임에도 많은 이가 자신의 부친이 강제동원, 강제징용을 당했다고 이야기 한다는 사실도 눈에 띄는데, 이는 오류라기보다 당시 한반도를 떠났던 이들이 느꼈던 현실적 상황인식에 가깝다. 일본의 패망과 함께, 스탈린의 강제이주로 인해, 중국정부의 소수민족 정책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이름(조센징, 차오셴쭈, 코료, 코리안 등)으로 불리게 된다. 냉전으로 한반도에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닫히기도 했고, 새롭게 일군 터전에서 만든 가족이나 여러 정황이 한반도로 떠나지 못하게 만들기도 했다.

김호일: 네. 우리 아버지는 경상북도 태어났습니다. 1917년에. 1938년경에 그 강제 동원으로 사할린 나가서 탄광에서 일하였습니다. 아버지가. 나는 사할린에서

1942년에 태어났습니다. 내가 17세 될 때까지 아버지가 러시아 국적을 받지 않았 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국적을 받아 놓으면 한국으로 못 나간다 해서 내가 17 살 될 때까지 러시아 국적을 안 받았습시다. 그 1959년에 내가 10학년, 그 중학 교 졸업 할 때 되니까 아버지가 빨리 러시아 국적 받자. (2012. 10. 20. 한양대학교 ERICA)

일본인은 떠났지만, 여러 이유로 그 곳을 떠날 수 없던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자신의 터전에서 다양한 사람과 만났고 새로운 방식으로 삶을 개척했다. 러시아 인 사위와 며느리를 맞이했고, 자녀들은 세계 곳곳에서 살고 있다. 한반도에 정 주하던 조상보다 문화적, 역사적, 언어적으로 복잡한 존재방식을 가진 집단이 된 것이다. 이러한 혼종성에도 이들은 스스로를 한민족이라 말한다. 이 주장은 자신 들이 겪은 삶의 궤적을 긍정하고 역동적으로 만드는 정체성의 정치이기도 하다. 이 모든 정체성 정치의 시작은 식민지의 경험과 깊게 연결된다. 각 한민족 디아 스포라 집단은 자신의 정체성을 역동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라도 식민지의 경 험을 끊임없이 현재로 소환하고 재구성한다.

식민지와 해방이라는 역사 속에서 이주는 언제나 중심과 변방으로 재구성되 는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변방은 맥락적으로 창조되는 영역에 가깝다(Morris-Suzuki 2006).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변방에 위치지우는 사고방식은 일제강점기 에 일본과 일본인을 중심 - 내지로 일컬으며 조선과 조선인을 외부인으로 만들 었던 사고방식의 변형된 형태다. 단지 중심이 한반도와 한국민으로 대체되었을 뿐이다. 이는 반식민 혹은 탈식민 운동의 “지배의 형식을 완전히 다르게 생각하 는 것”이라는 매우 강력한 생각”(Shaikh ed. 2008: 134)에서 한참이나 떨어져있 다. 삶이야기 참가자가 들려주는 일제강점기 선대의 이주 경험으로 시작되는 내 러티브는 식민 경험이 만든 중앙-변방 사고체계가 여전히 개인적, 집단적 인식 속에 자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는 언제나 변방이 될 수밖에 없고, 이 변방성을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와의 인적, 문화적, 언어적, 물적 관계를 연결시키는 전략을 택한다.

#### 4. 일상을 가로지르는 동아시아의 냉전

권현익은 냉전이 글로벌하게 펼쳐졌으며 “세계 전역에서 똑같은 방식으로 겪은 충돌이란 뜻은 아니”(Kwon 2013: 27)라고 지적한다. 그는 유럽 및 북미 국가의 냉전 경험이 상징적이고 외교적인 수사에 그쳤다면, 식민지배에서 벗어난 신생독립국가에게는 대부분 잔인한 내전과 폭력의 시대였다고 지적한다. ‘한민족 다문화 삶이야기’ 프로그램 참가자들이 만든 협력구술사 속에서도 냉전은 한반도 거주민 뿐 아니라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시공간 대부분에 질게 드리워져 있다. 그것도 상징적, 수사적 전쟁이 아니라 가족을 잃고, 사랑하는 사람을 증오하게 만든 절절하고 피맺힌 열전(熱戰)에 가깝다.

2013년 4월 한양대학교 ERICA캠퍼스에서 진행된 4차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에는 6명의 참가자가 협력구술사를 진행했다. 4차 프로그램에는 간단한 자기 소개 시간부터 냉전이 만든 이념대립의 희생자임을 자처하는 이가 등장했다.

박순이: 반갑습니다. 저는 대구에서 온... 10월 항쟁... 유족회장 박순이입니다. 나이는 69세고예. 또... 지금 자영업, 식당을 하고 있습니다. 어... 저는 소개가 극히 간단하게 했는데, 저는... 그... 이런 자리에 서기가 참 안 좋습니다. (울음) 빨갱이라고 파혼 당했고...(13초간 여운) 그리 20대부터 쪽 지금까지 저 혼자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명예와 억울한 누명을 벗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날 참가자에는 박순이 외에도 또 다른 10월 항쟁의 희생자의 아들, 중국 출신 조선족 여성, 사할린 출신 영구귀국 남성, 탈북여성, 중앙아시아 출신 남성이 참여했다. 가능한 한 같은 배경을 가진 이를 동일한 회차에 섭외하지 않고자 하는 것이 연구진의 기준이었으나 단독으로 타인 앞에 서길 거부하는 특수한 배경의 참가자 - 10월 항쟁 유족으로 인해 예외적인 구성의 협력생애사가 진행되었다. 연구진의 정체성이나 사회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프로그램의 성격과 목적을 설명하고 이해시키려 해도 끊임없이 경계하는, 한국사회에서 소위 “빨갱이”로

낙인찍힌 이들이 보이는 날카로운 거부의 몸짓(윤택림 2003: 293-294)을 감안한 참가자 구성이었다. 섭외 과정에서 연구진은 한국 사회에서 나고 자랐으나 이념의 다름과 연좌제로 인해 평생을 비국민에 가깝게 살아온 인물을 초청해 이데올로기 대립이 가진 삶의 특수성을 어떻게 상대화 시킬 수 있을지 모색해보고 싶은 욕망이 다소 섞여있던 것도 사실이다. 물론 사회자는 가깝적 가치 - 정치적이거나 이데올로기가 담긴 언설이나 공격적 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조정하며 진행하고자 노력했다.

참가자의 삶이야기는 한반도의 이념 대립과 폭력의 역사를 가해와 피해의 경계를 기묘하게 타고 들며 연구진 누구도 예상치 못한 장면으로 이끌어갔다. 중국에서 태어나, 해방 후 아버지가 남한으로 떠난 뒤 조부모 손에서 성장, 결혼 후 남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북한으로 이주했던 배경을 가진 이원숙이 탈북 후 아버지 찾고자 했다는 사연에서부터 시작된다.

이원숙: 50년도 전쟁에 나가서, 그 중국에서 사람 많이들 죽이던 게, 그 버릇이 어딜 가겠습니까? 그... 뭐 컴퓨터에 보면, 예, 내 하루 놀랐습니다. (중략) 이덕승(아버지, 가명 - 필자 주)이 가족을 찾아서 만났는데, 그 이덕승이는(두 번째로 이름 등장하자 박순이 눈이 커지며 이원숙 쳐다봄) 일찍이 사망됐지마는 이덕승이 처(남한에서 재가한 부인 - 필자 주)가 미국에 있더라고요. 미국에 딸 너에 아들 하나라고, 그리고 여기 아들이 군대 나갔다 죽고 손자가 큰 손자가 있는데 큰 회사를 꾸렸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데다 전환 하이까에 아버지 있는 데다 전화를 하니까에 그 딸이 나와서 그렇지마는 삼촌의 싸우(사위 - 필자 주)가 '무슨 상관이냐고 모른다케라' 이렇게 전화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를 찾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박순이: 아버님의 이름이 이덕...?

이원숙: 이덕승.

이현옥: 거기 독립단 있지요. 이덕승 독립단.

이원숙: 지금 가면 100세... 조금 넘을 겁니다.

이현옥: 성함은?

박순이: (손을 들다가 다시 내리며, 떨리는 목소리) 이덕승이세요?

이원숙: 이덕승.

박순이: 덕승이 맞으세요?

이원숙: 이덕승. 덕. 승.

이현옥: 독립단은 못됐다고 하더라고. 어르신들 말도 그렇고. 독립군 말고 독립단 이. 두 패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독립군은 백성을 위한 거고, 독립단은... (2013. 4. 12. 한양대학교 ERICA, 이원숙 삶이야기 중)

10월 항쟁 유족회 회장 활동을 하며 민간인학살 관련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 박순이가 탈북한 이원숙의 삶이야기를 시작하며 등장한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마자 놀라며 여러 사실을 확인하고자 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조부 때 중국으로 건너가 중국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다가 1996년 한국을 찾은 이현옥이 어른들에게 들었던 “백성을 위한 독립군과 상반되는 ‘독립단’”이라는 이름을 언급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덕승은 1933년 만주국군 군의관으로 부임했던 인물로, 1936년부터 조선인의 사상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일본군 육군특무기관에서 조직한 단체 활동을 거쳐 1937년 만주국군 제1독립포병대대에 상위로 일한 인물이다. 해방 후 대한민국 육군으로 편입된 그는 여순사건(1948. 10.) 당시 호남방면전투사령부로 개칭된 반군토벌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진압작전을 지휘했다. 여순사건은 대구에서 벌어진 10월 항쟁과 함께 가장 큰 규모의 민간인 학살이 자행된 사건이기도 하다.

박순이는 이덕승과 같은 인물의 손에 아버지를 잃은 피해자 유가족이다. 이원숙은 그런 의미에서 가해자의 딸이 되, 실상 이덕승이 남한으로 귀국하며 중국에 남겨져 조부모의 손에서 자란, 아버지에게 대한 원망이 가슴에 남은 일종의 피해자이기도 하다. 식민과 냉전의 맥락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의 피해자로 자란 두 사람이 만난 것이다. 섭외 과정에서 사전인터뷰를 진행한 연구진조차 예상치 못했던 냉전 피해자 가족의 대면이 협력구술사 진행 중에서 뼈죽 솟아 오른 것이다. 비슷한 연령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모았을 때, 이러한 냉전의 상처가 튀어나오는 일이 그렇게 놀랍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이 프로젝트가 지속될

수록 속속 드러났다. 이를테면 순천 지역 한 마을의 이장을 하던 당숙이 1948년 5월 좌익청년들에 의해 살해되는 사건을 겪은 후 대한청년단으로 우익테러 활동에 나섰던 마정호는 한국전이 발발하자 자진 입대해 낙동강 전투를 경험했다. 그가 가장 관심을 보였던 참가자는 젊은 시절 북한 개성 인근 포병부대에서 장교로 군생활을 하다 제대한 박강명이었다. 그는 박강명에게 북한의 생활, 특히 이념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에 대해 끊임없이 캐물으며, 사회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북에 대한 이념적 적개심과 남한 사회의 우월성을 드러내고자 했다. 조은(2008)이 지적하는 강경과 반공주의자 ‘월남’ 가족의 구술 방식과 상대적으로 침묵하기를 선택하는 ‘월북’ 가족의 모습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마정호: 제가 질문을 하나 할랍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이북서, 회의를 이북사람들은 자주 허지요? 야간에도 회의. 몇 번씩이나 합니까? 일주일에?

박강명: 네. 회의란 게, 우선 조직이 뭔가 봐야디, 북에는 조직이 어떻게 된가 하매, 첫째는 당, 노동당. 두 번째는 사로청, 세 번째는 여맹, 네 번째는 농금맹, 네 개 조직입니다. 이 조직마다 주 한 번씩 생활 총화 그런 회의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마정호: 아 그러면 일주일에 네 번을 해야겠으.

박강명: 아 그렇지. 생활 총화란 뭇인가? (하략)

두 사람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 사이로 일제 징병을 피해 1944년 만주로 이주한 후 중국에서 학교를 졸업하고, 북한과 중국을 오가며 철강관련 일을 하던 이호준이 끼어든다. 그는 “항미원조전쟁(중국에서 한국전쟁을 일컫는 말)”에서 친지를 잃은 경험을 갖고 있다.

마정호: 또 하나 의문 나는 거 있는데, 한 가족이 북에 살다가 일부만 탈북을 했으면 나머지 탈북한 가족이 있잖아요.

박강명: 있어요.

마정호: 그러든 와버린 사람, 현지 마을사람들이 고발을 허잖아요?

박강명: 마을 사람들이 중국에 간 줄 알지, 아직 없어요 지금은. 그러나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은, 우리는 칠십 넘었으니까 이 건 찾지도 않아요. 어디 간 줄 모른다. 다 지워버린단 말입니다. 중국에 왔다고.

마정호: 아~ 이려고 저러 중국이 좋기는 좋고만. (중략) 이복서 그러겼고만요? 여 사람 어디 갔냐고 그러면 중국에 여행 가뿌렀다고 그러든 되는구만?

사회자: 중국이 피난지다.

이호준: 북한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한다. 이, 먹을 게 없으니까 중국으로 먹고 살라다가 이렇게 (손가락으로 뛰어넘는 시늬) 생각한다. (2012. 11. 9. 한양대학교 ERICA, 박강명 삶이야기 중)

최전방에서 포병 장교로 긴장된 삶을 살았던, 덕분에 고혈압을 얻은 전직 인민군과 낙동강전투에서 주변에 동료들이 총탄에 쓰러져 나가는 모습을 솔하게 보았던 전직 국군이 한 자리에 만난 것이다. 서로에게 총부리를 들이대었던, 전쟁 후에도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서로를 제거해야 하는 적으로 느꼈던 상대와 한 자리에 마주하는 것은 당혹스럽고 긴장되는 일이다. 그래서 질문은 탈북한 참가자가, 중국군의 일원으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친지를 가진 조선족 참가자가 현재는 얼마나 철저히게 공산/반공주의자인지 묻는 것으로 시작했다.

그런데 군인만이 한국전쟁을 겪은 것이 아니다. 남북한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이 겪은 일도 아니다. 중국에 살고 있던 많은 이들이 자신의 가족 중 일부를 항미원조전쟁에 참전했던 경험을 갖고 있다. 심지어 한국, 북한, 중국, 사할린, 중앙아시아, 일본, 미국, 독일, 아르헨티나 이주를 경험했던 참가자에게 국경을 넘나드는 일생의 행로를 듣기 위한 목적으로 초대된 참가자조차 삶이야기 속 어느 지점엔가 서북청년단에게 혹은 우익에게 아버지나 친지를 잃은 희생자가, 또 사촌이나 마을사람을 항미원조전쟁에 보냈던 경험을 가진 인물이 끊임없이 등장했다. 조선어 인쇄 기술자로 살다가 하루아침에 소수민족 언어 사용이 금지되면서 실직을 해야만 했던, 한민족의 언어를 맘껏 사용하고 살았던(따라서 한국어와 조선어의 대립했던 역사 자체가) 삶 자체가 부럽다고 밝힌 사할린 영구귀국자도 있었다.

자기소개에서부터 팽팽했던 긴장감은 의례적 시간 속에서 “갈등 상황에서 생겨나는 무조화적(aharmonic) 혹은 반조화적(disharmonic) 과정”(Turner 2018: 46)에 이르게 된다. 협력구술사 구조에 참가하는 동안만큼은 탈북자와 중국조선족이 살고 있던 북한이나 중국에서의 생활이나 태도, 이데올로기에 대해 긍정하고 이해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다. 냉전 역사 속에 남한사회에 형성된, 우익 인사가 빨갱이와 반공을 언급하는 순간 권위를 획득하는 특정한 사회관계 체계가 파기되는 위반(breach)의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터너에 따르면 정례적이고 규범적인 사회관계의 위반 뒤에 위기(crisis)가 점증하게 되고, 이는 교정(redressive action) 단계로 몰아가게 한다고 한다. 교정 단계에서 역시 의례의 한가운데에서 벌어지는 일이며, 따라서 ‘이도 저도 아닌’ 전이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 결과 위기를 불러온 사건에 대한 응답을 통한 위기의 교정이 이뤄지지만 이는 사건을 일으킨 당사자의 비의례 - 일상 속 비평이나 해결과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게 된다(Turner 2018: 46-51).

협력구술사 속에서 한국전쟁과 냉전 경험이 만든 가시를 숨긴 질문과 대화는 이틀간 이어진 실천 의례 속에서 다음과 같은 교정 지점을 만들었다. 세 사람은 한국의 술이 북한보다 너무 약하다, 북한은 안주 없이 담배에 술을 먹기도 한다. 중국에서는 안주가 좋다, 국군 출신은 술안주는 개고기가 더 좋다는 식의 이야기로 흘러갔다. 서로 다른 이념과 체제가 개인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60여 년 만에 눈앞에서 만난 죽이고 싶었던 적은 너무나 평범한 노인이었고, 심지어 구술 중에 술 얘기가 나올 때마다 손으로 술잔을 들이키는 똑같은 시늉을 해대는 자신과 너무 닮은 취향과 몸짓을 가진 존재였다. 이념과 다른 차원에서 펼쳐지는 일상의 공통점을 모색하고 부각하고 일시적인 극복의 순간을 만들었다. 협력구술사 참가자가 들려준 삶이야기와 거기서 시작된 대화 속에서, 도저히 틈이 없어 보이던 일상과 이념 사이의 간격이 마침내 벌어진 것이다. 필자는 이들의 경험이 참가자의 사고방식을 바꿨다고 주장하고 싶지 않다. 다만 균열의 가능성을 발견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이 균열은 일반적인 의미의 구술사 채록만으로는 불가능했을, 비일상적 공간에서 서로 묻고 답하며 함께 삶이야기를 완성해간 협력구술사라는 의례적 성격 짙은 경험이 만든 결과라고 주장

한다.

## 5. 같음에 대한 저항, 대립을 넘어선 이해

앞서 언급했던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일념으로 삶을 이어가고 있다는 박순이는 이승만 정부의 실세이자 여순사건 토벌대 사령관이 삶이야기 참가자 이원숙의 아버지임을 확인했지만 삶이야기가 진행되던 현장에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았다. 사회자가 마지막으로 질문의 기회를 주었을 때도 “할 말은 많지만...”이라며 말끝을 흐리고 넘어갔다. 그러나 결국 저녁 식사 자리에서 그 이야기를 꺼냈다. 이덕승이라는 이름을 듣는 것만으로 얼마나 놀라고 떨렸는지를 토로한 박순이가 이원숙이 들려준 삶이야기까지 듣고 난 후 식사자리에서 건넨 말은 항의도 분노도 아니었다. 미국에 아버지의 배다른 자식이 살고있음을 확인했지만 만남을 거부당했고, 일생을 아버지 부재에 따른 (경제, 이데올로기, 가족사 모두의) 고통을 들려준 이원숙에게 박순이는 “그래도 아버지(의 남은 남한쪽 가족)와 화해는 꼭 하시”라고 당부했다. 이념과 체제를 넘어 참가자 각자가 지닌 삶의 경험에 공감하는 순간을 나눈 결과다. 가해와 피해를 극복하거나, 이념과 체제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일은 삶이야기 현장에서 가능한 성격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타인의 삶이야기에 대한 경청과 질문을 주고받는 협력구술사의 과정은 서로의 다름과 그 다름의 맥락을 이해할 수 있는 틈새를 열어준다. 함부로 화해와 치유를 말 할 순 없지만, 최소한 서로의 삶의 굴곡과 아픔에 대해 공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음은 분명하다.

남북한에서 직업 군인 생활을 한 두 사람이 가진 서로 다른 이념을 억지로 이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는 포로로 잡혔다가 풀려나자마자 술부터 찾았던, 고난의 행군 시기에도 도토리로 몰래 술을 만들어 마셨던 공통점이 있었다. 삶이야기 행사가 모두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에서 한참을 술을 주고받던 두 사람은 “이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갑자기 모두에게 건배를 제안했다. 한국전쟁 중에 어떻게 너희 가족만 피난 가느냐며 항구에 묶인 나

무배의 줄을 놓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뒤로 하고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와 반공주의 일선에서 살았던 실향민과 국군에 의해 온 가족이 몰살당한 민간인학살 피해자 유족이 만나 서로에게 “고생하셨다”고 이야기를 건네는 모습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추상적인 적으로 여겨온 상대를 살아있는 사람, 서로 상처 입은 사람이라는 이해로 나아가게 만들었다. 자신이 겪은 반공의 풍파가 누군가에게는 반미주의 속 위협으로, 일본인과 구분할 수 없는 조선인이기에 겪은 위협과 동전의 양면과 같은 냉전의 상처임을 상대화시켜 보는 기회가 되었다.

일상의 규범과 규칙을 위반하고 상대화 시키는 의례적 협력구술사 진행 과정에서 형성된 상호이해와 상호적 신뢰는 다른 종류의 위기를 수면 위로 등장하게 해줬다. 이를테면 보통 한국민과 만난 자리에서라면 함부로 꺼낼 수 없던 한국사회의 제도적, 사회적 차별과 몰이해에 대한 토로가 이어졌다. 우즈벡 출신 고려인 2세와 사할린 1.5세, 재일동포 4세, 중국 조선족 1.5세, 남한 정주민이 서로의 호칭 속에서 불만과 궁금증의 대화가 오간다.

천아르카지: 그러면 영주권 받았어요? 지금? 한국에?

이원숙: 영주권이라는 게 없고, 고저 우리는 오자마자 국적 올리고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금천구에서예, 북쪽은 다 해줍디다.

나희태: 오셨는데 환영하는 박수 한 번 쳐주십시디.

이현옥: 우리 중국에서 온 사람들은 여기 국적이 있어야 되지만 북한 사람들은 오면 다 국적 올려줘요, 예. (2013. 4. 13. 한양대학교 ERICA, 이원숙 삶이야기 중)

최고선: 그... 의문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옛날에서 있었던, 중국에 조선족 이죠. 그래서 소련에 사시는 조선 사람 처음 봤는데, 고려인 이라고 합니까?

남로제: 네,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 예...

윤제상: 그거는 우리 역사 박사들한테 물어봐야 되요. 왜서 고려인이라 하는가. 똑같은 조선시대, 1863년도에 넘어 갔거든요. 선조들이 러시아로.

사회자: 그때 넘어간 게 1863년.

윤제상: 네, 그게... 첫 그... 세 가구가 넘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러시아에서 등록된

게, 그런데 중국에 간 사람들은 조선족이라 하고, 러시아 간 사람들은 고려인이라고 하고, 응? 사할린 넘어간 사람들은 한국인이라 하고.

사회자: 동포라고, 사할린 동포...

윤제상: 일본은 이제... 재일동포라 하고.

최고선: 재일동포, 예...

윤제상: 나는 그... 항상 보면 교포는 뭐고, 동포는 뭐고, 어떨 때는 교포도 부르고 재소동포라 하지, 교포라 안 하고. (2019. 4. 27. 한양대학교 ERICA, 남로제 삶이야기 중)

어떤 집단에게 특정한 호칭을 붙이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니다. 정치, 문화, 역사가 중첩된 맥락과 전략이 뒤엉켜 만들어진다. 대화 속에서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모든 참가자는 자신을 규정해온 한국사회의 호칭과 대우에 의문을 표한다. 중국과 사할린, 우즈벡, 러시아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오사카에서 조선 학교를 다니며 익힌 억양 때문에, 심지어 한국전쟁 때 남으로 피난을 와서, 아버지가 좌익활동을 했기에, 전라도 출신이라 받아야 했던 차별 경험과 주홍글씨 같은 호칭에 대해 토로한다. 이 같은 대화가 터지는 일은 독백이 아니라 의례적 시간이 만든 드라마에 가깝다. 터너가 의례적 시간에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 사회극(social drama)라 칭한 맥락이 여기에 있다.

나아가 호칭이 만든 선입관과 차별의 시선에 대한 토로 속에는 한국사회가 가진 중앙과 변방의 이미지가 무엇인지 성찰하게 만든다. 위니짜꾼이 지적하는 것처럼 “새로운 가장자리”를 만드는 것은 새롭게 “우리”를 만드는 일이다. 가장자리, 변방이 만들어질수록 중심의 우리는 분명해지는 구조다. 심지어 이 중심의 개념은 일제 강점기에 완성된 사고체계를 한반도와 한국민으로 대체했을 뿐 전혀 다를 바 없다. “그들’에 의한 식민화를 비난하며 ‘우리’에 의한 식민화를 더 정당하고 칭송할 가치가 있다고 만든”(Winichakul 2019: 245) 행위에 다를 아니다. 협력구술사 참가자 사이의 차별에 대한 대화는 한민족사는 한반도 거주민 - 한국민이 독점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며, 이제는 다양한 한민족의 경험을 담아내는 새로운 민족과 국민에 대한 틀거리가 필요함을 강변하고 있다.

최고선: 보니까 이것이 그 뭐랄까 제일조선인, 일본에 사는 제일조선인. 나는 국적이 없습니다. 아까 ‘국적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하니까 실은 조선사람이라고 하는데, 패스포트를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한국 대사관에 가서 이번에 올 때도 그 임시, 한 번만 쓸 수 있는 임시 여권을 내왔습니다. 그니까 이것 없이는 나는 바깥에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나의 그 신분을 증명해주는 것은 사이뉴코쿠(再入國), 재입국 허가서죠. 그니까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나가도 되지만 너는 돌아와도 좋다, 보통 나가버리면 돌아오지 말라고 합니다. (2019. 4. 26. 한양대학교 ERICA)

현재 한국사회가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바라보는 극단적일 정도로 다양한 시선이 존재하는 이유는 중앙과 변방의 논리만 작동하지 않는다. 한국사회가 경험한 또 각각의 디아스포라가 겪은 (탈)식민과 냉전 이데올로기, 자본의 논리, 국민국가 만들기 등이 형식부터 목표까지 (같은 집단 내부에서조차) 매우 상이하고 중첩되어 있다. 식민과 냉전의 역사를 관통하며 동아시아와 중앙아시아에서 살아온 혹은 한국으로 귀환한 한민족 구성원은 자신의 사고방식과 입장을 각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삶을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실천해왔다. 이러한 경험이 집적된 노인 세대가 자신의 삶이야기를 나눈 결과는 한국사회/한국국민의 경험을 절대적인 한민족의 역사이자 서사로 주장할 수 없게 만들었다. 심지어 한국민 안에서도 상이한 한국에 대한 경험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계급이나 문화자본의 우열과 같은 한국사회가 중요시하는 가치가 상대화, 심지어 역전된 특별한 경계성(liminality)에 자리한 시공간에서 서로서로의 삶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삶을 상대화 시켜보는 기회가 생겼다. 한민족이 다르면서도 닮은 가치체계를 갖고 있으며,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감각과 세계관을 가질 수 있음을 말이다.

## 6. 나오며: 연행되는 국민과 민족

한반도 안팎 어디에 살았건 식민과 냉전의 흔적은 코리안 디아스포라 1, 2세대

의 삶 전반을 가로지르고 있다. 다름을 만든 것 역시 식민과 냉전이고, 다름 사이에서 이해의 가능성을 찾아낸 것 역시 식민과 냉전의 대결 속에서 ‘살아남은’ 삶의 경험이다. 이들의 구술 속에서 민족이나 국민, 조국과 고향까지도 고정된 실체이기보다 맥락적 상태이며 그 상태는 매우 유동적으로 연행되는 성격을 갖는다. 이는 코리안 디아스포라 집단의 특이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다. 디아스포라의 내러티브는 자신이 거주하는 국가의 제도 범위 안과 밖을 오가며 조직되는 관계를 보여주는 틀이며, 이를 통해 고향이 안정된 범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증하는 것(Kalra, Kaur & Hutnyk 2014)이기도 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한민족 집단 - 사이에서 삶의 경험을 나누는 과정은 서로에 대해 깨닫게 되는 동시에 다름의 간극을 끊임없이 드러낸다. 이 글에 등장한 이들 다수가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지위를 갖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민으로 환원될 수 있으리라 기대되는 동일성은 대화가 지속될수록 계속 엇나간다. 오히려 다른 이데올로기, 역사, 문화 속에서도 생존해냈음을 이야기하며 이해의 가능성이 만들어졌다. 서로의 다름을 이해했다는 것이 동일한 ‘우리 민족’ 이야기로 반드시 수렴되지 않는다는 사실 또한 중요하다. 복지 혜택을 이야기하며 ‘같은’ 국민을, 이데올로기의 다름 속에서 ‘같은’ 민족을 내세우기도 했지만, 결국 삶 이야기를 통해 확인되는 것은 국민과 민족이 맥락적으로 ‘연행’되는 것에 가깝다는 사실뿐이다. 협력구술을 통해 모아진 삶이야기는 민족과 국민이라는 잣대로 분석하려하면 할수록 식민과 냉전에 대한 서로 다른 기억과 경험 속에서 국민과 민족의 모양이 얼마나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질 수 있는지 재확인하게 된다.

코리안 디아스포라가 헤쳐온 삶의 층위와 경험의 다양성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지난 육 십 여년 동안 한반도 남쪽에서 당연하게 여겨온 국민과 민족에 대한 관념이 보편적인 한민족의 것이 아니라 여러 경우 중 하나라는 사실이 드러난다. 위니찌꾼은 오랜 동안 라오족과 시암족의 생활공간이 구분되지 않았음에도 현대 태국 사회에서 강력한 시암-타이다움이 존재하며, 그 기원이 기능할 수 없는 과거로부터 기인한다는 믿음의 체계가 형성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그에 따르면 이 모든 관념은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구획된 국경선을 통해 구성되는 현대사의 결과일 뿐이다. 위니찌꾼은 지리체(geo-body)라는 개념을 통해 근대 지리

학 지식이 담긴 국가 지도가 안과 밖, 중앙과 변방의 개념을 만들고 나아가 근대적 국민의 기획된 욕망을 지표면에 구체화 시켰다고 주장한다. 변방과 중앙은 역사적 사실보다 지리체의 작동 속에서 구성된 사실에 가깝다(Winichakul 2002). 위니찌꾼의 주장은 이 글에서 살폈던 사례를 분석하는데 좋은 예시가 된다. 지도 위에 그려진 대한민국의 국경, 한반도 남쪽에 정주해온 사람만이 한민족사의 헤게모니를 쥐고 있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이 한 사람의 일생보다도 짧은 시간 사이에 형성된 것이라는 사실을 성찰하게 해준다. 국사의 중심을 한반도(심지어 남쪽)로 여기는 사고방식을, 한반도 남쪽의 정주민이라는 존재 또한 이주로 점철된 한민족 근대사에서 잠시 그 지리체에 머물고 있는 존재일 뿐이라고 낮설게 보게 만든다.

단일민족이라는 신화 속에는 한민족이 종족, 언어, 역사적으로 단일한 과정을 겪은 존재라는 막연한 믿음이 숨어있다. 탈북자를 포함한 디아스포라가 들려주는 단일민족이되 다른 경험과 경로를 걸어온 삶이야기가 의례적 시공간 속에서 한반도 정주민의 그것과 같은 비중으로 다뤄지는 순간, 단일한 문화와 사고, 언어, 태도, 세계관을 가진 단일민족 신화는 허구였음이 드러난다. 다양한 한민족이 존재할 수 있으며, 다른 그 어떤 배경을 가진 한민족도 자신과 다른 한민족 누구보다 더 우월할 수 없음이 밝혀진다. 사실 단일민족 신화는 한반도의 근대화 과정 - 일제강점기와 대한민국 형성기에 한민족이 마주했던 역사적 위기상황 극복을 지식인이 발췌, 수용한 만들어진 역사에 가깝다(하정현 2016). 재구성된 고대사를 교육을 통해 신화화한 역사적 공통체로서의 단일민족이 다른 생애 과정을 겪은 다른 ‘우리’민족 삶이야기 속에서 상대화된다. 상대화의 힘은 강력하다. 국가 차원의 거대 공동체 서사로 다뤄지지만, 결국 역사라는 것은 개인의 삶을 통해 발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식민지, 냉전, 전쟁, 분단, 학살, 이주, 차별 등은 모두 개인의 경험을 통해서만 드러난다. 협력생애사는 각기 다른 개인의 경험 속에서 한반도 역사를 다시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는 근대를 뛰어넘는 상상력의 질료가 된다.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 과정에서 드러난 다양한 사례는 비단 단일민족이라는 신화의 해체에 그치지 않는다. 개인의 삶을 바탕으로 인간적인 이해를 갖는

태도는 근대 한민족사가 만든 수많은 적대적 관계를 뛰어넘을 단서도 제공하고 있다. 식민지와 냉전 경험 속에서 자행된 수많은 국가폭력의 피해자를, 또 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본문에서 소개한 극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16회의 협력구술사 속에서 연구진은 전혀 평범한 삶을 살아온 인물이 의례적 시공간으로 넘어오는 순간 가족사 어딘가에 냉전이 만든 가해와 피해의 경험을 하나씩 토로하는 모습과 마주하게 되었다. 추상화되어 있던 가해 집단과 피해 집단의 구성원이 눈앞에서 만났을 때, 적개심은 다른 차원의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내 삶이야기를 하면서 내 인생을 망쳐냈다고 여겨온 가해자를 적어도 삶이라는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나와 상대의 삶에 대한 이해가 곧바로 화해와 치유를 의미하진 않는다. 그러나 적어도 가해와 피해라는 명료한 이분법으로 말할 수 없는 중층적 차원으로, 즉 차별이 아닌 대화라는 수준으로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가능태로 바꿔놓았다.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등장과 단일민족이라는 강력한 신화는 근대라는 사고방식 속에서 단단히 맞물려 있다. 스콧(Scott)은 20세기 후반에 이르러 근대를 추동한 국민국가와 이를 뒷받침해온 소위 ‘하이 모더니즘’이라는 명쾌한 단일성의 사고방식이 도전받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가 보기에 근대과학으로 탄생한 지도에 그어진 국경선, 일시불란한 사회체계 등은 바닥부터 흔들리고 있다. 오히려 국가 단위와 무관해 보이는 “장기간에 걸쳐 생존하는 어떤 사회 제도-가족, 소규모 공동체, 소농, 어떤 특정 사업 분야에서의 가족 기업-는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 발휘하는 그들의 뛰어난 적응력”(Scott 2010: 538)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어쩌면 우리의 일상을 당연하게 지배하고 있던 근대 국민국가와 국가중심주의, 한반도 중심 역사관의 한계를 뛰어넘는 상상력은 국가로 쉬이 환원시킬 수 없는 개인이나 작은 공동체를 조망할 때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한민족다문화 삶이야기’는 하나의 같음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럼에도 다름 속 일관성이 찾아지는 다양한 한민족성(poly-Korean ethnicity)이 존재할 수 있는 여지를 보여주고 있다.

교신: 조일동(한국학중앙연구원 글로벌한국학부 조교수)(heavyjoe@aks.ac.kr)

Correspondence: Joe, Il Dong(Assistant Professor, Division of Global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heavyjoe@aks.ac.kr)

2020.01.31 접수, 2020.02.04 심사, 2020.02.11 게재확정

## 참고문헌

- 김경학, 2014,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한국 이주와 정착: 광주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국제지역연구, 17(4), 259-262.
- 김귀옥, 2013, 구술사와 치유 - 트라우마 치유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통일인문학논총, 55, 131-165.
- 김호연·엄찬호, 2010, 구술사(oral history)를 활용한 인문치료의 모색, 인문과학연구, 24, 361-383.
- 김현미, 2008, 중국 조선족의 영국 이주 경험: 한인 타운 거주자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문화인류학, 41(2), 39-77.
- 선봉규, 2015, 체제이행기 카자흐스탄 사회의 변화와 고려인의 적응, 민족연구, 61, 124-143.
- 성동기, 2013, 재 우즈베키스탄 고려인 민족정체성의 현실과 과제, 민족연구, 56, 24-45.
- 신기영, 2016, 디아스포라론과 동아시아 속의 재일코리아인, 일본비평, 14, 22-49.
- 양은경, 2010, 민족의 역이주와 위계적 민족성의 담론 구성 - 『조선일보』의 조선족 담론 분석, 한국방송학보, 25(5), 194-237.
- 윤택림, 2003, 인류학자의 과거 여행 - 한 빨갱이 마을의 역사를 찾아서, 역사비평사.
- 윤택림, 2004, 문화와 역사연구를 위한 질적연구방법론, 아르케.
- 이기중, 2014, 렌즈 속의 인류, 눌민.
- 이정은, 2012, ‘외국인’과 ‘동포’ 사이의 성원권 - 재한조선족 사회의 지위분화에 따른 성원권 획득 전략, 경제와사회, 96, 402-429.
- 이희영, 2012, 탈북-결혼이주-이주노동의 교차적 경험과 정체성의 변위: 북한 여성의 생애사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다문화, 2(1), 1-45.
- 조일동, 2015, 영구귀국과 사회문화적 정체성의 균열: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 사할린 동포의 사례를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37, 31-59.
- 조은, 2008, 전쟁과 분단의 일상화와 기억의 정치, 사회와역사, 77, 191-229.
- 최승현, 2016, 조선족 정체성의 ‘다름’과 ‘선택’에 관한 역사적 고찰, 한국동북아논총, 80, 109-128.

- 하정현, 2016, 단일민족, 그 신화 형성에 관한 일 고찰: 종교 가르치기의 한 사례 연구, 종교문화비평, 29, 101-133.
- Crane, Julia G. & Michael V. Angrosino, 1992, Field Projects in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현지조사 방법, 한경구·김성례 옮김, 1996, 일조각.
- Eaton, Mick ed., 1979, Anthropology-Reality-Cinema: The Films of Jean Rouch, London: British Film Institute.
- Goffman, Erving, 1959, The Presentation of Self in Everyday Life, 자아연출의 사회학, 진수미 옮김, 2016, 현암사.
- Kalra, V., R. Kaur & J. Hutnyk, 2005, Diaspora & Hybridity, 디아스포라와 혼종성, 정영주 옮김, 2014, 에코리브르.
- Kwon, Heonik, 2006, After the Massacre: Commemoration and Consolation in Ha My and My Lai, 학살, 그 이후 - 1968년 베트남전 희생자들에 대한 추모의 인류학, 유강은 옮김, 2012, 아카이브.
- Kwon, Heonik, 2010, The Other Cold War, 또 하나의 냉전 - 인류학으로 본 냉전의 역사, 이한중 옮김, 2013, 민음사.
- Morris-Suzuki, Tessa, 2000, Henkyo Kara Nagameru, 변경에서 바라본 근대 - 아이누와 식민주의, 임성모 옮김, 2006, 산치럼.
- Oakley, Ann, 2000, Experimental in Knowing: Gender and method in the social science, Cambridge: Polity Press.
- Pink, Sarah, 2015, Doing Sensory Ethnography(2nd Edition), Los Angeles: Sage.
- Schechner, Richard, 1985, Between Theater and Anthropology, 민족연극학, 김익두 옮김, 2004, 한국문화사.
- Scott, James C., 1998, Seeing Like a State, 국가처럼 보기 - 왜 국가는 계획에 실패하는가, 전상인 옮김, 2010, 에코리브르.
- Shaikh, Nermeen ed., 2007, The Present as History, 역사로서의 현재, 김병철 옮김, 2008, 모티브북.
- Turner, Victor, 1975, Drama, Fields and Metaphors: Symbolic Action in Human Society, 인간사회와 상징행위: 사회적 드라마, 구조, 커뮤니티스, 강대훈 옮김, 2018, 황소걸음.
- Winichakul, Thingchai, 1994,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지도에서 태어난 태국: 국가의 지리체 역사, 이상국 옮김, 2019, 진인진.

## **Recognizing Differences, Understanding Differences and Overcoming Equals: Analyze the Performance of Korean Nationality and Ethnicity in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among Korean Diaspora**

Joe, Il Dong\*

**Abstrac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how Korean nationality and ethnicity are revealed in during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programs among 6-8 aged 70 years or older Korean Diaspora with a diverse history, culture, society and ideological background. In the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programs, participants' ethnic and national identities are overlapped or completely different according to their contexts. The cracks between nationality and ethnicity are largely due to the different experienced inside and outside of the Korean Peninsula about (post) colonization and Cold War. Participants, who were invited to extraordinary time and space had the same opportunity of speaking. Therefore, no one's life could have got a model story. All participants revealed their differences and confirmed the hidden similarities in the differences. In the program both parties of national violence were confronted not as abstract beings but as human beings who have been living their own life for long time. Although cannot reconcile or heal the past, they have acknowledged each other's differences and make each other's choice understandable. The experiences of the Korean diaspora's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shared the non-uniform lives which have led to explore the possibility of multi-layered and flexible nationality and ethnicity.

**Keywords** Collaborative Oral Life History, Oral Life History, Cold War, (Post) Colonialism, Korean Diaspora

---

\* Division of Global Korean Studies at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Assistant Professor, Cultural Anthropology, heavyjoe@hanmail.net